

로컬푸드직매장 빛가람점 누적매출 100억 돌파

개장 3년만에 성과... 하루 평균 방문객 420여명·매출 1100만원
나주 참여농가 472명·소비자 회원 8775명...상생 자치농업 앞장

나주시 로컬푸드직매장 빛가람점(이하 빛가람점)이 누적매출 100억원을 돌파했다.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1월 개장한 빛가람점이 7월 기준 참여 농가 472명과 소비자회원 8775명이 개장 3년여 만에 누적매출 100억원을 돌파했다.

빛가람점의 이 같은 성과는 ▲순수 지역 농산물 판매 ▲생산자 실명제 ▲수수료 10% ▲신선함 유지를 위한 진열 기간 줄이기 등 로컬푸드 공급 원칙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의 폭넓은 신뢰와 지지가 뒷받침됐다.

또 출하농가 및 마을을 대상으로 출하방법을 교육하고, 신규 농가 발굴 및 지속적인 농가 관리에 힘쓴 결과이다.

빛가람점의 유통구조는 소농과 고령농에서 다양한 품목을 소량생산하여 큰 농지 없이도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고, 소비자는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받는 상생 자치농업 구조이다.

빛가람점은 개장 초 일평균 매출이 350만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1100만원을 육박했고, 방문객도 일평균 420여명으로 3년간 53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빛가람점은 268품목의 농산물과 176종의 가공식품 및 정육·제빵·반찬 3개 업체가 입점해있다.

시는 지난 민선 6기부터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자치농업'을 목표로 지역 농산물의 선순환을 위한 로컬푸드 체계 정착에 힘써왔다.

시는 2014년 '나주시 로컬푸드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전국 최초 먹거리 전담부서 먹거리계획과를 신설하고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설립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빛가람점)개장 ▲빛가람점, 농수산식품부 우수직거래 인증사업장 선정 ▲공공기관 로컬푸드 공급 확대 MOU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사업 공모 1위 선정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또 시는 지난해 11월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로컬푸드 공급확대 업무 협약을 체결해 현재 한전 KPS 등 공공기관 13개소에 단계급식용으로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 시는 지난 2017년부터 서울시 급천구 어린이집 및 아동센터 등 140개소에 산지에서 직접 생산된 건강한 식재료를 공급해오는 등 도·농간 건강한 상생을 실현



나주시 로컬푸드직매장 빛가람점 전경.

(나주시 제공)

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지역농협과 연계·협력을 통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올해 빛가람동 산포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7월 개장 예정)를 지원하고, 내년에는 추가로 2-3개 지역농협에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시는 오는 9월 원도심 한옥상가(2층/160㎡)에 로컬푸드 직매장 금남점과 올해 안으로 전남도 위탁운영 매장인 광주

농성동 전남도로컬푸드직매장(1층/425㎡)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빛가람점 누적매출 100억을 달성하도록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힘쓴 농가들과 로컬푸드를 애용해주시는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며 "푸드플랜 선도지자체로서 로컬푸드 직매장, 공공복지급식 등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나주 도시농업 민간 전문가 23명 뒀다

제1기 양성과정 교육 수료식

도시농업 현장에서 활약할 민간 도시농업 전문가들이 양성됐다.

나주시는 지난 16일 농업기술센터 다목적강당에서 제1기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수료식을 갖고 민간 전문가 23명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교육은 지역 여건에 적합한 도시농업 활동가 양성을 통한 도시농업의 공익적 가치 구현과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시민 25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4일부터 매주 화요일 총 11회(82시간)에 걸쳐 교육을 실시했으며, 이 중 출석률 80%이상의 교육생 23명이 수료했다.

교육생들은 도시농업의 이해와 도시농업 작물 재배 기술, 유형별 텃밭 관리, 학교 텃밭 개발 및 기획안 작성, 친환경 퇴비 만들기 등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이론과 다양한 기술을 전수 받았다.

수료생들은 학교 텃밭 감사 및 관리 인

력, 도시농업 전문강사 등으로 활동하며 도시농업 보급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 수료생들에게 국가공인 '도시농업관리사' 자격 취득의 기회도 주어진다.

도시농업관리사는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지정된 전문 인력 양성기관(전국 64개소)의 도시농업 전문 과정을 80시간 이상 이수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여하는 자격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도시농업은 도심 속 녹지 확장이라는 본연의 기능뿐만 아니라 건강, 환경, 공동체 회복 등 도시민의 건강한 여가 문화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도시농업 현장 전문가로서 첫 발을 내딛는 1기 수료생들이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농업 교육을 희망하는 시민은 나주시청 기술지원과 도시농업팀(061-339-7451~3)으로 문의하면 된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

나주시 '치매 극복 선도학교' 다시초교 지정

나주시가 치매극복 선도학교로 다시초등학교를 지정하고 치매인식 개선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나주시는 지난 16일 다시초교 시청각실에서 이재주 나주시보건소장(치매안심센터장), 이경희 다시초교장 등 관계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치매극복 선도학교로 다시초등학교를 지정하고 현판을 전달했다. <사진>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지역사회 치매 예방과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시초는 치매예방교실과 치매안심마을(다시면 죽산5리) 운영 등 치매 극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주시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와 가족, 만60세 이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치매

검진 및 가족교실, 치매예방 교실, 치매조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나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061-339-4786~7)로 문의하면 된다.

이경희 다시초등학교 교장은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나주시의 역할 사업에 함께 하게 되어 기쁘다"며 "치매인식개선을 위한 건전한 파트너이자 지역사회주체의 일원으로써 함께 고민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



나주경찰, 장애인 인식개선 위한 합동간담회 개최



나주경찰서는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

나주경찰서는 지난 17일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지체장애·농아인·시각장애인협회 나주시지회, 전남장애인종합복지관, 전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6개 단체장 및 시청 관계자, 수사·민원부서 소속 경찰관 3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

이날 간담회는 발달장애의 이해와 전담경찰관 제도 안내, 장애인 인권감수성 향상 및 권리보장을 위한 인권적 수사방법에 대한 토론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장애인 단체장들은 장애인으로 겪었던 경찰의 수사·민원처리 과정에서 고충과 생활불편사항 그리고 장애유형별 대면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면서 경찰관들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정경채 나주경찰서장은 "이번 간담회 기회에 이번엔 그치지 않길 바란다"며 "발전적인 소통의 첫 걸음으로써 좀 더 세심한 감성치안 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보호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은빛 배움터' 성인 문해교육 자원봉사·기부 잇따라

나주시가 지역 노년층의 문맹률 해소를 위해 운영하는 '은빛 배움터' 성인 문해 교육 과정에 자원봉사와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나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달 전남외국어고등학교 학생 10명으로 구성된 봉사 동아리 '도담도담'이 배움터가 열고 있는 요양시설을 방문해 문자 해독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전래동화 읽어주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교육 대상자에 대한 물품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노안으로 학습에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빛가람동 소재 E안경(대표 최종희)이 다양한 도수의 돋보기안경 30개를 기증했다.

시는 문해교육을 실시하는 다시면 시

계마을 등 7개소에 안경을 배분할 예정이다.

문해 교육 관계자는 "노인 학습자 개개인의 시력 상태에 맞는 돋보기를 활용할 수 있어 앞으로 문해 수업을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나주시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지역 노년층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은빛 배움터 성인 문해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문자 해독이 어려운 마을 어르신 대상으로 문자 읽기, 쓰기, 셈하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7개 마을 어르신 50여명을 선정해 총 38회 과정으로 운영한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www.airport.co.kr

대한민국 하늘길을 빛내다!

만남의 기대,
여행의 설렘이 시작되는 곳,
우리는 한국공항공사입니다.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무결점 스마트 공항을 만듭니다!

KAC 한국공항공사
KOREA AIRPORTS CORPORATION